



제84호

www.koreacma.org

한국교회음악협회

KOREAN CHURCH MUSIC ASSOCIATION

발행인 박 영 근
편집인 김 동 민
발행일 2009. 7. 27
TEL (02)3663-0771
FAX (02)3663-0772

인사의 말씀

전국의 교회음악 동역자 여러분!

유난히 일찍 시작된 무더위 속에서 모두들 산과 바다로 피서를 떠나는 이 계절에, 휴가를 접어두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한 일에 더욱 정진하고자 원근 각처에서 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금년 제30회 “교회음악 하계대학 획기적 합창세미나”에서는 어떤 새로운 찬양곡들이 발표될까 하는 흥분과 기대로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의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새롭고 다양한 찬양곡들을 제공 하기위해서 코러스센터, 중앙아트, B&B, GCM성가, 기음출판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작곡, 선곡해 왔습니다. 함께 해 주신 각 출판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 합창마라톤에 참가해 주시는 여러 합창단과 성가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나라 합창과 교회음악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왔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운영하시는 윤학원 운영위원



박 영 근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장

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들, 강의를 맡아 주신 강사님들과 시범 합창단으로 참가해 주시는 합창단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획기적 합창세미나의 발전과 한국교회음악 발전에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휘자들의 영적성장’이란 주제로 강의를 맡아 주신 김영운 목사님의 강의에 크게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교회음악협회 임원들과 간사들의 수고와, 여러 이사님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여름, 3박4일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새로운 찬양곡들을 공부하면서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 정보도 교환하고 음악적 견해도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9년 7월27일

2009년 획기적합창세미나 최다등록 예상

7월 27(월) ~ 7월 30일(목) 영락교회 베다니홀
인터넷, 사전접수 실시 800여명 참가신청

한국교회음악협회의 획기적합창세미나가 매년 매회 교회음악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도해 오고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도 여러분의 교회음악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한국의 합창음악과 교회음악의 정상인 시립합창단과 프로같은 아마추어합창단들 그리고 대학합창단들이 새로운 성가들은 소개할 것이며 첫날에 열리는 합창마라톤에는 어린이, 여성, 선교합창단들과 모범성가대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모습을 여러분께 선보일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영운목사님께서 “지휘자들의 영적성장”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칠 것이다. 또한 사역하는 영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합창지휘법, 오르간반주법, 피아노반주법, 합창발성법, 메시아해석법을 개설하였다. 또한 한국성가출판의 중심이 되는 여러 출판사가 새로운 곡으로 악보를 내어 은혜의 성가를 마련하였다. 작년에 이어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세미나가 강의 진행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략적 홍보팀이 가동되어 인터넷과 사전접수를 실시한 결과 800명가량이 접수하였으며 현장등록을 통하여 접수되는 것을 감안할 때 최대의 인원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학술포럼 주제 발표 1·이문승 교수

전통적 예배의 교회음악 – 그 당위성과 변화의 필요성

본협회가 주최하는 교회음악 3차 학술포럼이 2009년 2월 26일 아현 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그날 주제발표의 내용을 시리즈로 나누어 장우형 이사의 발표에 이어 이문승 부이사장의 발표내용을 게재 한다. 본 내용은 본협회가 나가려는 교회음악 방향과 내용에서 다를 수 도 있다 <편집자 주>

1. 머리말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노래하기를 즐겼다. 중국정사인 이십오사(二十五史)의 기록 중에는 고대 한국인의 공통점 하나를 말할 때 '어울리면 노래하고 춤춘다'는 낙천기질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양반들도 시조나 가곡을 한 곡 씩 구성지게 부를 줄 아는 것을 멋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이후의 유교(儒敎)에서 체계화된 예악(禮樂)사상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옛 우리의 선조들은 예(禮)와 악(樂)은 항상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특히 악을 중시하였다.

선비들이 생각하였던 음악은 철학적 사고와 통하는 것이었다. 고상하고 품격 높은 음악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멋스럽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처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한국인의 오랜 정서에는 좋은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음악적 습관과 음악적 감성이 선비들의 가슴에 깊이 자리했다.

한편 이러한 생각은 서양음악사의 그리스 시대 음악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스의 Ethos 음악관이 바로 그것이다. 좋은 음악은 인간들의 삶과 인격 형성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불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회음악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적용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음악이나 교육용 음악은 잘 조직된 프로그램과 절제된 감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선율의 구성에 있어서 반음계는 물론 중 음정과 감 음정은 피하였고 예배음악은 신학적, 음악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후기 산업사회가 되자 시민사회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존엄성이 더욱 부각되고 실용주의와 대중성이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즉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대중매체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정보의 개인화, 세계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게 되고 세대 간의 모든 격차가 무너져 버렸다. 변화된 사회에서는 매스컴을 중심으로 대중성이 크게 부각되자 대중들을 끌어 들이려는 다양한 방법을 활발히 연구하였다. 결국 '반복하라, 중독성은 음악성을 이긴다'는 글 제목처럼 상업적 목적에 의한 심리를 이용한 방법들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세속성과 밀착된 방법으로 대중에게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교회음악에서도 회중성과 관련하여 "교회음악은 대중음악이었다",



이문승 부이사장
(작곡가,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1. 머리말

2. 살려야 할 전통성과 변해야 할 요소들

- 1) 교회음악은 말씀과 음악의 아름다운 조화
- 2) 교회음악의 신학적 음악적 검증과 선별

"지금의 대중음악도 미래에는 고전음악이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깊은 뜻은 찬송의 회중성을 말하는 것이지 대중음악과의 구별을 무너트리려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교회음악의 특징과 유형 그리고 그 구조와 효과에 대한 깊은 연구도 없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기호에 의존하여 음악이 선택된다면 흥미 중심으로 기울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음악의 질적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교회음악의 음악적 기준을 무너트리게 된다는 점이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음악이 세대 간의 갈등을 더욱 조장되고 있다. 요즘 범람하고 있는 대중적 요소의 음악들은 수단에 대중가요적인 음악의 요소에 기독교적 가사의 내용만을 붙인 음악이다. 이것을 예배찬송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별된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음악에 있어서 회중은 직접 참여자이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듣고 불려야 할 권리가 있다. 회중들은 들음에서 발전하고 행함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교회음악은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

2. 살려야 할 전통성과 변해야 할 요소들

1) 교회음악은 말씀과 음악의 아름다운 조화가 중요하다. 또 교회음악은 각 교회의 형편에 맞으며 교회음악 문화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 교회음악은 우선적으로 예배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준비하는 과정과 결과가 아름다우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모두에게 흥미로워야 한다. 그래서 교회음악은 회중성과 예술성이 중요하다. 교회음악은 듣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찬양을 듣고 부름으로 인하여 직, 간접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쉬운 것만 목표로 하기보다 교회음악 행위에 보여지는 준비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도 예술성 있는 교회음악을 마련해야 교회는 성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찾으시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교회음악은 예배의 효율성과 예술적 아름다움

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찬양에 대중음악적 요소를 유입시킨 결과 회중들의 참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비전문인의 특색과 즉흥성으로 이어졌다.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고 사람을 모으는데 목적을 두다 보니 예술적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되었다.

오늘날 어린이, 청소년과 나이가 드신 분들의 찬송가의 취향이 분리된 현상을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은 찬송가를 아예 안 부르기도 한다. 주일학교 성가대를 통하여 노래와 노래하는 마음을 배우고 모임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익히는 아름다움이 사라져 가고 있다. 또한 성인들도 합창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며 아름다움을 쌓아가는 즐거움도 잃어가고 있다. 오직 개인과 개인의 욕심과 흥미가 있을 뿐이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안에 전문적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돌보이는 교회들이 있어 참으로 감사하다.

선교 초기에는 거리를 돌며 복치고 나팔을 불며 전도에 힘썼다. 북이나 나팔은 야외전도의 효과적 도구였다. 실용성이 뛰어났고, 간편하고 소리는 우렁찼다. 선교사들로부터 소개된 서양음악은 우리들의 정서와는 달랐지만 당시로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한국 민족의 가슴을 뚫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상황과도 비슷하다. 대중악기를 사용하여 찬양인도자는 많은 군중을 회중 찬양으로 일사분란하게 이끈다. 시종일관 노래하며 뛰기도 한다. 청년들은 자유스러움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또 성장하는 교회는 열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2) 교회음악은 기독교적 특색과 효율성이 강조된 실용음악이어야 하되 가사와 음악이 신학적, 음악적으로 검증되고 선별된 것이어야 한다. 무분별한 음악과 가사는 회중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가사의 검토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우선 작사자나 번역자가 잘해야 하겠지만 지도자나 목회자가 곡을 선택할 때 반드시 가사를 미리 읽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표현법 미숙, 다른 종교적 용어 사용, 추상적 표현, 그리고 깊은 뜻 없이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가사, 내용의 단순성 등은 선택하지 않거나 수정해야 한다. 쉽고도 효율적이며 내용이 있는 가사를 노래해야 한다. 회중들에게 가사를 효율적으로 전

달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가사와 음악의 악센트를 맞추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예배에서는 음악이 빠르고 볼륨이 크다. 매스 미디어의 영향으로 의례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부르게 된다. 그래서 나의 고백보다는 대중에 의하여 끌려가게 되기도 한다. 주위에서 자주 불리는 CCM들을 살펴보면 음악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양적 성장 논리를 앞세워 세속성이 짙은 매체와 대중음악기법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양적 성장 이후에 부딪히는 새로운 질적 교육을 위한 노력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할 것이다. 지금도 음악 양식이나 연주 매체의 차이, 그리고 대중음악적 환경과의 마찰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는 많다. 삶의 스타일이나 생각의 형태 그리고 질이 다르기 때문이라. 복음 성가나 대중음악의 요소가 가미된 음악행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CCM이 어느 정도 활용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걸러지지 않은 음악인 줄 모르고 '찬양을 많이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삶의 양식은 어떤 교회음악을 부르느냐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식별은 약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객관적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점도 많다. 예를 들면 음역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것, 리듬의 변화가 지나치게 많거나 계속된 당김음, 곡의 길이가 지나치게 긴 곡, 선율의 진행이 부자연스럽거나 어려운 것, 그리고 음량을 지나치게 크게 하고 드럼세트와 심벌즈를 무분별하게 비음악적으로 두드리는 음향만 무성하게 울리는 연주 등이다. 영적 공감이 없는 흥미 위주의 이러한 시끄러운 상황들이 계속될 때 교인들을 당황스럽고 혼란에 빠지게 하며 쉽게 피곤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사상이 직, 간접적으로 표현된 다양한 실용적 교회음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순박하면서도 다양하고 유익한 노래를 열정적으로 부르기 위하여 교회음악인들은 항상 교회음악을 교회 음악답게 가꾸고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장를 기획하고 연출해야 한다. 창작이 그 저변을 이루고 변성해야 교회음악이 근본적으로 발전한다.

〈다음호에 계속〉



2009년 획기적 합창 세미나 어린이교실

어린이자를 둔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금년부터 어린이 돌보미교실을 운영한다. 영락교회 어린이집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세미나기간 내 4일동안 오전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간식이 제공된다. 단 점심식사는 부모와 함께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7월 22일까지 신청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임은희 간사 : 010-3077-0771

	월	화	수	목
9:00 ~ 10:00	• 자기소개하기	1. 여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2.그림으로 표현해보기 3.종이접기		
10:00 ~ 12:20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나눠준 과제나 집에서 배우는 학습지 함께 하기 • 책을 읽어 주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12:20 ~ 13:30	• 맛있는 점심 먹기			
13:30 ~ 15:30	• 월 : 모범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공연관람 • 화·목 : 밥을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 주변 산책 (30분) 간단하게 미술활동 (스케치북, 색연필, 크레파스, 색종이) • 수 : 영화 관람 (명동 CGV)-코난 (애니메이션)			
15:30 ~ 17:00	• 낮잠 자기 (혹시 모르니 작은 베개&이불) • 잘 때에는 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음악CD (4세를 먼저 채우고 3세와 7세를 채운다)			
17:00 ~ 18:00	• 간식 먹기 • 즐거운 놀이 게임하기			



이 사 동 정

이수철 직전 이사장

- 6월5일, 한국국민악회, 제25회 작곡발표회 신작 발표 연주
- 8월3일~6일, 제64회 상록뮤직캠프, 속리산관광호텔 (실기 강사)
- 8월16일, 바이얼린 연주, 예배음악에서의 찬양대의 중요성, Choral Work Shop 미국, Portland교회연합회 주최

오진득교문

- 7. 10~11일 기독교대 등교수강 / 소망수양관
- 7. 1~4일 기독교대 중국등교수강 / 위해분교

박신화 이사

- 7월 27일 이화침버과이어 획기적합창세미나에서 연주 (베다니홀 3시)
- 7월 27일 모범성가대 초청공연 (갈보리 찬양대, 베다니 홀 7시 반)
- 7월 30일 안산시립합창단 획기적 세미나에서 연주 (4시 50분)
- 7월 30일 안산시립합창단 CD 출판(신자되기 원합니다)
- 8월 5일~12일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미국 순회연주
- 8월 13일 대전 세미나 및 안산시립합창단 초청연주
- 8월 21~23일 호주 시드니에서 세미나
- 8월 27일 여전도회 연합성가대 세미나(영락교회)
- 8월 27일, 31일 세계합창제(인천)에 안산시립합창단 공연
- 9월5일 고양 아람누리 극장에서 안산시립합창단 공연(전체)

강옥민 이사

- 8월 2일 창립100주년 기념 음악회 초청연주 의정부 아가페코랄 / 부여 칠산침례교회
- 9월 13일 주기도문 칸타타 연주(오진득 곡) 동두천, 철원 아가페코랄
- 9월20일 육군 26사단 초청 위문연주(의정부 아가페코랄)

김인주이사(포항 지회장)

- 7월13일 광양중앙교회연합 찬양세미나 인도
- 7월20일 경주아가페합창단 경주교도소 위문연주

노영아 이사

- 6월29일~7월4일 중국산둥성 위해 기독교음악예술원 세미나 및 졸업식 오진득학장, 노영아교수, 강옥민교수, 박정숙교수
- 6월12일 수원 명성교회 초청연주회 (아가페 콰이어 지휘:노영아)/ PM: 7:00
- 7월27일 획기적인세미나 합창마라톤 모범선교합창단 출연 아가페 콰이어 지휘

손호동이사 동정

- 7월 Choral Ensemble 창단 30주년 기념 cd제작
- 7월 만수장로교회 찬양대 세미나
- 7월 기도한국 지휘 (cts방영)
- 7월 Choral Ensemble 천안지역 지방순회(일주일간)
- 7월 21일 요벨스 콰이어 9회 정기 연주회
- 7월 28일 요벨스 콰이어 획기적세미나 연주
- 7월 28일 부활절 칸타타 놀라운 이야기 번역출판

이선우 이사

- 7월 3일(금) 천안 동산교회 성가대 세미나 강의 / 오후 7시
- 7월 19일(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변교회 초청 아이노스합창단 연주 지휘 / 7시 30분
- 8월 9. 16일 '작곡가 이선우 초청 작곡발표회' 독일 만하임, 뮌헨

2009 획기적합창세미나에 참여하신
교회음악 동역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교회음악협회

- 고 문 : 구두회 박상수 백태현 이관섭 윤학원 김형석 오진득
- 이 사 장 : 박영근 ● 부이사장 : 이문승 ● 사무국장 : 이대구
- 서무이사 : 고덕환 ● 재무이사 : 주성희 ● 감사 : 박신화 이상길
- 이 사 : 강옥민 박재국 구 천 김동민 김명엽 김성균 김성봉 김영호 김옥자 김은석
김철륜 김희철 노영아 민인기 박창훈 석성환 손호동 안경재 안희복 원성희
여홍은 유병무 유병용 윤의중 윤대빈 윤학봉 이경선 이기선 이동훈 이근엽
이병직 이보철 이상훈 이선우 이인호 임금수 임창은 정우형 전희준 천인한
최광덕 최동규 최원범 최훈자 한태근 홍관옥 홍정표 황철익 (가나다순)
- 당면직이사 : 김인주(포항) 박종학(대전) 석부진(경기남) 이광수(울산) 장철진(목포) 한창석(인천)
(가나다순)
- 간 사 : 임은희

편집위원연락처

- 위원장 : 김동민 011-477-4488
- 위 원 : 천인한 011-469-5561
- 류현열 011-9903-1537
- 신현민 011-9136-9985
- 원고 및 인터넷문의
conductor@nate.com
- 기획인쇄 : 디자인심포니 02-2279-9387-8
kapa456@hanmail.net